



단결과 연대로 책임지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14기 25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7.16(목)

일지테크지회 설립, 민주노조 첫걸음 내딛다

43명 전원 찬성으로 지회 규칙 제정 · 초대 집행부 선출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2026년 7월 14일(화) 15시 40분 일지테크 3공장 식당에서 일지테크지회 설립 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는 경주지부 집행위와 지회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일지테크는 경주 4개 공장과 경산 1개 공장을 운영하며, 차체 외판 품목을 생산하는, 한국노총이 다수노조인 사업장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조합 운영 참여 제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투명한 조합비 운영, 조·반장 갑질 근절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일지테크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깃발 아래 민주노조를 세우고, 조합원이 주인 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이번 총회를 마련했다.

경주지부는 2025년 11월 27일 첫 상담을 시작으로 2026년 7월 13일까지 모두 13차례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과정에서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이해, 복수노조 제도, 부당노동행위 대응, 산별노조 역할, 지회 설립 준비와 현장 조직화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총회는 노동의례를 시작으로 지부집행위와

지역사업장 소개, 지부장 대회사, 설립 준비 경과 보고 순으로 진행했다. 이어 최익선 경주지부 미조직국장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성원보고와 서기·감표위원 지명 뒤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총회에서는 지회 규칙 제정 건과 지회 임원 선출건을 안건으로 다뤘다. 지회 규칙 제정 건은 총원 43명, 투표인원 43명, 찬성 43명으로 확정했다. 지회 임원 선출 건도 총원 43명, 투표인원 43명, 찬성 43명으로 가결했다.



초대 집행부는 지회장 송진우, 부지회장 차승엽, 사무장 이승환으로 맡게 됐다. 송진우 초대 일지테크지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오늘 저의 당선은 저의 승리가 아니라 동지 여러분 모두의 승리”라며 “조합원이 주인 되는 조합, 강한 조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진홍 경주지부장은 대회사에서 “금속노조를 선택해 준 동지들에서 감사하다”며 “경주지부와 인근

지회 동지들은 일지테크지회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언제든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섭대표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진량공장까지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며 “경주 현장을 단단히 지키고, 주변 동료들에게 금속노조 가입을 적극 알려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조는 조합원이 주인인 조직이며, 임금과 노동조건은 반드시 조합원 투표로 결정한다”며 “오늘을 출발로 금속노조와 함께 새로운 삶과 일터를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총회를 마친 뒤 지부 집행위와 일지테크지회 초대 임원들은 현장순회를 하며 조합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지회 안착과 조직 확대를 위해 더 많은 동료들을 만나기로 했다.

일지테크지회 설립은 조합원이 스스로 권리를 찾고 현장의 문제를 함께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다. 특히 민주노조 건설, 임금인상 쟁취, 투명한 조합비 운영, 조반장 갑질 근절은 일지테크 노동자들이 직접 세운 과제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일지테크지회가 현장에 뿌리내리고 더 큰 조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할 예정이다. 일지테크지회 조합원들과 민주노조를 세우고, 조합원 권리 회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린다.

